

# 영광군, 다양한 상하수도 사업 '눈길'

### 2022년까지 6년간 449억 투입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現45% 진행

### 제2정수장 개량 등 맑은 물 공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지속 추진

영광군은 안정적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맑은 물 공급과 주민 위생복지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449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45% 진행 중이다.

올해는 영광읍 대신지구 일대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수율은 55%에서 85%로 향상되어 연간 180만톤의 물 절약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군 재정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내에 상수도 현대화사



업과 연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상수도 유입·유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로 누수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광 제2정수장 개량 사업이 추진중 에 있다.

1986년 준공 이후 40여 년 가까이 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이 절실했었다. 이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정수장 개량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그 결과 영광군은 올해 환경부 주관 2020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와 군비를 각각 110억 원씩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공사 중에도 영광읍 일대에 원활한 급수를 위해 무중단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영광 제2정수장 개량 공사를 10월경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이 준공되면 수질이 더욱 향상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발생 억제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42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1%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함평경찰,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화상회의

### 사회적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치안활동 강조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5일 경찰서 소통마루(소회의실)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주재로 각 과출소장 및 교통관리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사망사고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내부결속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륜차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륜차 등 특별단속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마을별 이륜차 소유주를 파악, 1:1 홍보 등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발생 분위기를 제압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음주운전 및 신호·속도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의하여 집중단속과 가용 경력 총동원,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박종열 서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륜차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교통사망자 줄이기 차원의 경찰에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이륜차 소유자중 실버(고령자 등)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 및 집중관리 하는 등 맞춤형 교통치안 활동을 강조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 도초 화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선정

###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1억 확보...“대표적인 특화 어촌권역으로 조성”



신안 도초 화도항 전경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 도초면 화도권역이 선정되어 오는 2025년까지 총 71억원 (국비 70%)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주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청 및 면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이 선진지 벤치마킹과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계획

서를 작성, 전라남도 1차 심사 및 해양수산부 2차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초 화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화도 옛골목 복원, 생태하천정비, 간재미 섬문화 마당, 전국최대 수국공원과 연계한 명품숲길 수국 데카로드, 체험장, 주거지 색채경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초생활기반과 문화·복지 시설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무안군, 버스정류장 531곳 사물주소 부여

무안군은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치 체계 고도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531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와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부여된 주소이며, 안전사

고 발생 시 지도·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좀음쉼터나 공중전화에도 사물주소를 확대 부여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목포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비전 선포



는 관광도시 목표'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가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한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2025년 1,5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다.

김정환 기자

## 코로나19 극복

### 대수많은 담양

###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